

세일교통 노동조합¹⁾ 관련자 1차 구술(집담)

1. 구술자: 조준식, 이형로, 김석동
2. 면담자: 박보영
3. 촬영자: 권용협
4. 구술일자: 2012년 4월 6일
5. 구술장소: 경남 거제시 연초면 구술자 사무실
6. 구술분량: 07분 22초 / 일부 공개
7. 주요내용: 거제에서 배를 타고 가서 만난 변호사 노무현

조준식 : 제가 팔십이(82)년도 삼(3)월경에 세일교통에 근무를 하면서 너무나 노동 조건이 악조건이 되어서 그 해에 아마 십이(12)월경 되는 거 같습니다. 노동조합 설립을 선동했습니다. 우리 조합원들이 전부 찬성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해가지고, 노동조합을 처음에 설립하다보니까 없던 노동조합이 갑자기 생기니까 너무 [회사의] 탄압이 심해가지고. 노동조합이 처음에 교섭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들과 대화를 시도했는데 만나주지를 안하고 회피하고 노동조합을 상당히 알잡아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한 이(2)년여 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심을 하게 되었는데,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노동조합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요구를 많이 했드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 탄압 속에서 결국 저희들이 이겨낼 수가 없었고 이 세 사람이 먼저 희생타로 해고 내지는 보안대²⁾에 제가 끌려가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.

면담자 : 당시 노동조건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쭙볼게요. 지금으로부터 삼십(30)년 가까이 정도 되는데요, 그때 당시에 노동조건이 어땠습니까? 급여라든지 시간이라든지.

조준식 : 급여는 그때 당시에 한 이십사(24)만원, 월 이십사(24)만원인데 근로기준법과 비교를 해보면 이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이었습니다. 그런 것을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[노동]조건을 요구하다보니까, 사용

1) 거제 지역의 버스회사로 1982년 처음 노조가 설립됐다. 세 명의 구술자가 노무현을 만난 1985년 즈음엔 70~80여 명의 노동자가 있었다.

2) 정식 명칭은 국군보안사령부(현재 국군기무사령부).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으로 지역별로 보안대를 뒀다. 군사에 관한 첩보 수집과 대간첩·대테러 작전 지원, 군 범죄수사 등을 담당하지만 당시에는 민간을 사찰·감시하고 개입하는 공안기관 역할을 했다.

자가 부담스러우니까 결국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시작을 한 거죠.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

그때 당시에 그런 속에서, 제도 속에서 뭔가 [해결책을] 찾아보려고 각방으로 노력을 했고 지역에 있는 어떤 단체나 또는 국회의원들 모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깐 다 거절하고 회피했습니다. 그러던 와중에 항운노조인지 해운노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권변호사가 부산에 가면 좋은 분 있는데 한번 찾아가보라고.

김석동 : 그 책을 보고 알았잖아?

이형로 : 아니다, 찾아갔다.

김석동 : 찾아간 거는 아는데, [노무현] 변호사님을 알게 된 동기가 옛날에 <현대노사>라는 책이 있었어요. 그 책을 사서 봤는데 그 책 속에서, 부산에서 인권변론을 하시는 노무현 변호사님을 봤어요.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이 찾아갔어요, 사무실³⁾에 쫓겨 처음에.

면담자 : 책에서 이런 변호사가 있다는 걸 알고

김석동 : 책을 보고 갔었죠.

면담자 :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같이

조준식 : 예, 삼(3) 명이 배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는데⁴⁾ 변호사님이 ‘어떻게 오셨습니까?’ 라고 하시기에 그때는 변호사인 줄도 모르고 ‘노무현 변호사님을 좀 뵈러왔습니다’ 하니깐 ‘제가 노무현 변호사입니다’ 이렇게 해서 쳐다보니까 상당히 소탈하고, 근엄한 맛이 없고 정말 친근감이 있었습니다. 그런 속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받았던 탄압들 또는 제가 [보안대에서] 맞아서 다리가 부어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까 말까 망설이면서 조용조용히 한참 대화를 하다보니까 친근감이 들어서 내용들을 전부 설명을 올렸더니 가족이 몇 명이냐고 묻더군요. 그래서 얘기 돌하고 집사람하고 너(4)이라고 이야기하니깐 ‘이런 정도의 탄압 같으면 생명을 보장 못하니까 부산으로 이사를 오면 안 되겠냐’ 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. 그래서 삼(3)명이 의논을 했어요. ‘어떻게 하면 되겠냐’ 하고 이야기 하니깐 ‘흠어지면 이쪽(거제) 지역에서 노동조합을 할 수 없으니까 흠어지면 안 된다’ 라고 의견을 모으고 [변호사님께] 인사를 드리고 거제도로 왔습니다.

면담자 : 그러셨군요. 그러면 세 분이 부산에 노무현 변호사님 뵈러 같이 가신 거

3) 대전지법 판사생활을 그만두고 1978년 5월 부산 부민동에 개업한 변호사 사무실.

4) 구술자들이 노무현 변호사를 찾아간 시기는 1985년 5월경이었다.

잖아요? 김석동 선생님, 이형로 선생님은 변호사님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?

이형로 : 저는 뭐 [변호사님이] 저쪽 한쪽 구석에 잠바차림으로 있는 것이 영 마음에 ‘힘이 되겠나?’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. 차츰차츰 대화도 해보고 이래보니까 ‘진짜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났구나.’ 문재인⁵⁾ 변호사는 양복 착 입고 있는데 항시 노무현 변호사님은 잠바차림으로 이래 있고.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니까 진짜를 만났다고 봤어요. 서울로 다니면서 이리 사방팔방 다 [사정]해봐도 국회도 찾아가서 부탁을 해도 그런 거 외면하고 그래서.

면담자 : 김석동 선생님도 첫인상 얘기 좀 해주시면.

김석동 : [웃음] 처음에는 실망했죠. 사실은 실망했습니다. 실망했는데, 처음에 저희들이 찾아갔을 때 변호사님이 목에 종기가 나가지고 목을 못 움직이시더라고요. 요래 가지고 요래 돌아보시고. 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변호사님하면 좀 근엄하고, 연세도 많이 들고 그런 줄 알고 찾아갔는데. 참 젊으신 분이 목에 또 종기도 나고 그래서 참 보기에는 실망스러워서 저 혼자서 많이 웃었어요. 많이 웃었는데, 대화를 시작하고 보니까 참 전문 변호사님답게 또 거기에 밑에 노동문제만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요원이 따로 있었어요.⁶⁾

■ 조준식 주요이력

- 1951. 경남 김해 출생
- 1982. 세일교통 입사. 세일교통 노조 초대 위원장
2, 3, 4대 노조위원장
- 1991. 거제시 초대 시의원

■ 이형로 주요이력

- 1950. 경남 통영 출생
- 1982. 세일교통 입사

5) 문재인은 1982년 8월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에 합류해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했다.

6) 구술자들이 찾아간 1985년은 변호사 사무실 내 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던 때였다.

■ 김석동 주요이력

1951. 경남 사천 출생

1983. 세일교통 입사

조준식, 이형로, 김석동 세 사람은 거제도의 버스회사인 세일교통에서 함께 일했다.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1982년 노동조합을 창립하고 ‘삼총사’로 불렸다. 노무현을 만난 건 1985년, 노조에 대한 사측의 탄압이 절정에 이른 시기였다.

초대 위원장부터 세일교통 노조위원장을 네 번 연임한 조준식은 1991년 거제시 초대 시의원을 지냈다. 2002년 대선 경선 당시 거제에 방문한 노무현 후보를 수행하는 등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졌다. 세일교통노조 변론과정은 초기 저서 <여보, 나 좀 도와줘>, 자서전 <운명이다>에도 등장한다.